

금주의 서평

호모 딜리버리쿠스 배송 문명은 어떻게 우리를 바꿨는가

『우리는 무엇을 배송받는가』

서평자_ 김우중(인천대학교 동북아물류대학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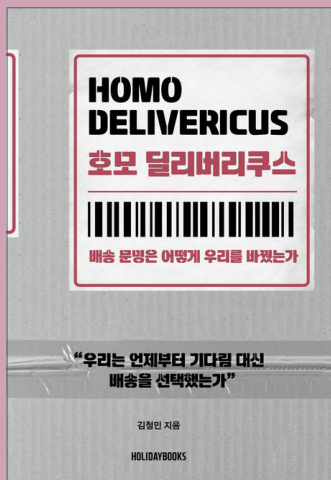
“사람은 덜 움직이고, 물건은 더 많이 움직이는 시대. 우리 삶을 지탱하던 기본값(Default)이 소리 없이 전복되었다.” - 41쪽

1925년 8월 19일 자 조선일보 연재만화 『명탕구리』의 「설농탕 배달」 편에는 한 남성이 자전거로 설렁탕을 배달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이보다 앞선 조선 후기에는 ‘효종갱’이라 불린 해장국이 사대부 집안으로 배달되었다는 기록도 전해진다¹⁾. 음식뿐 아니라 파발꾼의 문서 전달, 보부상의 물품 운반 등 배송은 생각보다 훨씬 오래된 인간의 활동이었다.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혁신이 아니다. 쿠팡이나 배달의민족이 등장하기 이전에도 철가방을 든 중국집 배달원은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었고, 동네 슈퍼에서도 구매한 물품을 집까지 배달해 주었다.

과거의 배송이 필요할 때 이용하는 특별한 서비스였다면, 현재의 배송은 우리 삶의 기본 전제가 되었다.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생활물류통계에 따르면 경제활동 인구 1인당 연간 택배 이용 횟수는 2000년 5건에서 2025년 218건으로 약 43배 증가했다. 이 책에서 저자가 말하는 ‘호모 딜리버리쿠스’는 단순히 배송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다. 배송을 전제로 소비하고 생활하는 현대인의 새로운 모습을 의미한다.

우리는 배송이 얼마나 빨리 도착하는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어떤 시스템을 거쳐 우리에게 오는지 모른다. 아니,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제시간에 도착하기만 하면 된다. 이 책은 우리가 너무도 익숙해져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배송’을 하나의 문명 현상으로 바라보며, 도시, 노동, 소비와 감정, AI에 이르기까지 배송의 이면에서 작동하는 메커니즘에 관해 설명한다. 그리고 저자는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질문을 던진다. 배송의 편리함을 대가로 우리가 무엇을 잃고 있는가.

1) 출처: YTN 사이언스, 「조선시대에도 배달 음식이 있었다?」, 2017. 8. 28.



저 자: 김철민
(비온드엑스 대표, 인하대학교 글로벌물류
최고지도자과정(GLMP) 지도교수)
발 행: HOLIDAYBOOKS, 2026, 248쪽
청구기호: 658.78-26-7

목차

프롤로그 나는 언제부터 밖에 나가지 않아도
살 수 있게 되었을까

- PART 1 정지된 인간: 이동을 멈춘 종의 탄생
- PART 2 창고가 된 도시: 물류가 점령한 공간의 기록
- PART 3 감정을 배송하다: 불안은 오늘 도착합니다
- PART 4 부품이 된 인간: 플랫폼 노동의 민낯
- PART 5 AI가 설계하는 삶: 시스템 통치의 시작
- 에필로그 당신의 삶은 지금 어디로 배송되고 있는가

호모 딜리버리쿠스

배송 문명은 어떻게 우리를 바꿨는가

『우리는 무엇을 배송받는가』

BOOK
서평자가 추천하는 함께 읽으면 좋은 책



물류트렌드 2026 :
지능형 물류

저자: 조정희, 김성진, 이연경 외
발행: BEYOND X, 2025, 328쪽
청구기호: 658.78-25-25



네카쿠배 경제학 :
일상의 변화 속에서 발견한
비즈니스 인사이트

저자: 김철민
발행: page2, 2021, 267쪽
청구기호: 658.872-21-70

도입부에서는 배송과 디지털 플랫폼의 확산으로 인해 업무, 쇼핑, 식사, 교육 등 우리의 생활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며 시작한다. 이러한 전환은 편리함을 가져왔지만, 우연한 발견(Serendipity), 시간의 주도권, 선택의 경험을 잃고 있다고 말한다. 이어서 시선은 도시로 향한다. 제2장에서는 택배와 배달 음식 수요 증가로 인한 우리 도시공간의 변화에 대해 보여준다. 도시의 1층은 배송 기사들과 픽업을 기다리는 물품들로 채워지고 있으며, 편의점은 기능이 확대되어 물류의 거점으로 진화하고 있다. 도시 곳곳에 초소형 물류센터(MFC)가 들어서고, 아파트 단지 내에는 자율주행 배송 로봇이 등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배송은 우리 도시의 모습까지 바꾸고 있다.

변화는 우리의 심리에도 영향을 미친다. 빠른 배송 덕분에 우리는 인내심이 부족해지게 되었고, 즉시성으로 인해 회복탄력성과 자립 능력을 잃고 있다. 쿼커머스(Q-commerce)²⁾는 불안과 고립을 달래주는 도파민 소비를 유발한다고 저자는 경고한다. 이러한 즉시성 뒤에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배송 노동자가 존재한다. 배송 노동자는 물품을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이어주는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를 담당한다. 제4장에서는 우리가 누리는 편리함이 배송 노동자의 희생에 의한 것임을 강조한다. 배송 기사들이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탓에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이고 위험을 떠안게 되는 등 플랫폼 경제의 양면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AI와 추천 알고리즘, 구독 서비스로 인해 선택을 시스템에 넘겨주고 있는 우리의 모습에 관해 이야기한다. AI는 우리의 구매 기록과 행동을 바탕으로 제품 추천을 해주어 우리는 어느새 스스로 선택하기보다 시스템이 제안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데 익숙해졌다. 구독과 정기배송 시스템 역시 우리의 선택권과 주체성을 잃게 한다.

우리는 어떤 물품이든 30분에서 하루 내로 받을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 그것은 단순한 배송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이 압축된 결과물이다. 우리는 그 편리함을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살아간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나면 문 앞에 놓인 배달 음식 용기와 택배 상자가 이전과 다르게 보인다. 익숙함을 잠시 멈추고 배송의 이면을 바라보게 만든다. 당연하게 누리는 배송 뒤에 무엇이 있는지 한 번쯤 돌아보기 위해 『호모 딜리버리쿠스』는 모두가 읽어야 할 책이다. 익일배송, 당일배송, 2시간 배송, 그리고 30분 배송. 다음은 무엇일까. 그것을 대가로 우리는 또 무엇을 내어줄까.

2) '빠르다'(Quick)와 '상거래'(Commerce)의 합성어로, 고객이 상품을 주문하면 한 두 시간 이내에 배송지까지 상품을 배송하는 즉시 배송 서비스를 의미함

